

창원시 “조사주체 말할 수 없다”...왜?

베이스볼 브레이크 2년만에 최저지 둔갑 '진해구장' 미스터리

- 1 2011년 동명대학교수팀 조사선 “최악” 2013년 창원시 용역 평가선 “최적”
- 2 “평가결과서 최우수” 큰소리 창원시 조사주체·내용 공개 요구엔 “못한다”
- 3 용역조사엔 전문가 단 한명도 없어

2년 만에 부적격에서 최적의 장소로 둔갑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다. 창원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방부 소유라 공사에 언제 착수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터에 야구장을 건설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창원 시민과 연구단 NC가 모두 반대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용역조사에서 진해 육군대학 부지가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창원시의회의 의원은 “최종 용역평가에서 진해가 공동 1위 수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대학 부지는 2011년 동명대 전용배 교수팀이 진행한 ‘창원야구장 신규

건립에 대한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11위로 평가된 곳이다.

●2년 만에 최적의 장소로 둔갑?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육군대학 부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새로 생긴 도로도 없으며 주변 인프라에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용역조사는 정반대였다. 특히 2011년 조사에서 육군대학 부지는 순위만 11위였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당시 1·2위(창원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마산종합운동장) 후보지와는 300점 만점에서 100점 이상 차이가 났다.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NC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약속한 2016년 3월까지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프로야구 흥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이 부문에서 최하위였다.

창원시 조영일 체육진흥과장은 이에 대해 “2년 전 용역평가 결과라 실용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육군대학 부지와 진해의 교통여건은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지난달 30일 진해 육군대학 부지에 새 야구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 부지가 최종 용역조사에서 공동 1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군대학 부지는 2011년 용역조사에선 전체 11위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창원 | 연합뉴스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철저히 숨기는 창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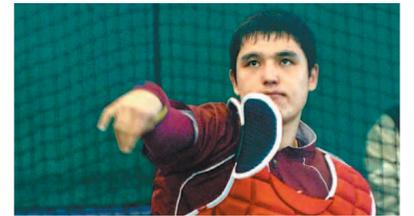
창원시는 “(2013년) 최종 용역조사 결과 진해 육군대학 부지가 경제성이 매우 우수

하고 미래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적의 장소로 꼽혔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누가 용역을 진행했고, 어떤 항목을 조사했는지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2011년 용역조사는 조사항목 등에서 매우 높은 객관성을 보였다. 창원시가 몇몇하다면 새로운 용역조사에 대해 숨길 이유가 없다.

●어떤 전문가도 용역평가를 맡지 않았다!

스포츠동아 확인 결과 국내 스포츠마케팅·스포츠산업 부문에서 공정성 및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교 연구진 중에는 창원시의 최종 용역평가에 참여한 팀이 없다. 한 대학 교수는 “(2011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용역평가가 이뤄졌다면, 학계에는 누가 맡아 진행하는지 다 알려진다. 그러나 그런 조사가 다시 대학에서 이뤄졌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기 위해 객관적인 항목 및 비중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계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누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등 단 한 가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어둠 가르는 스윙소리 박동원의 ‘공포 특급’

주차장서 밤늦도록 나홀로 훈련 행인들 섬뜩...피해가기 해프닝

넥센 구단 관계자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에 차려진 스프링캠프 숙소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밤이 깊어 자정이 다 된 시간, 잠시 바람을 쐬러 산책을 나갔다가 행인들이 주차장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고개를 가웃했다. 사연은 이렇다. 넥센 코칭스태프가 묵는 레지던스 인 매리어트와 선수단 숙소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사이에는 주차장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한 선수가 연신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니 주인공은 포수 박동원(23·사진). 선배 포수인 최경철, 허도환 등과 올해 치열하게 주전 경쟁을 펼칠 선수다. 영경열 감독이 “지난해 마무리훈련의 최대 수확”이라고 칭찬했을 정도로 기대도 받고 있다. 그만큼 열의가 남다르다.

오후 2시면 모든 훈련이 끝나는데도, 밤늦도록 개인 훈련에 열중하는 박동원의 모습에 호모웃긴 것도 잠시, 이 구단 관계자는 곧 투수들이 침사리 주차장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한밤중에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는 모습이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순하고 훈련 열심히 하는 선수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다”며 결정 웃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트위터 @goodgoer

“윤요섭·서동욱, 장가가더니 달라졌어!”

휴식 때도 전력 분석실 찾아 훈련 체크 “세계형 선수로 변신...유독 열심이네요”

사이판에서 전지훈련 중인 LG 포수 윤요섭(31)과 2루수 서동욱(29)은 휴식시간에 전력분석실을 자주 찾는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전력분석팀이 촬영한 자신의 타격 영상을 보면서 훈련 성과를 체크하고 있다.

LG 구단 관계자는 “윤요섭, 서동욱, 정주현 등이 분석실을 가장 많이 찾는 선수들이다. 요섭이와 동욱이가 결혼한 이후 ‘세계형 야구선수’로 변신해서인지 유독 열심이다”고 귀띔했다.

윤요섭과 서동욱은 지난해 말 나란히 결혼한 새신랑.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둘에게 이번 스프링캠프는 매우 중요하다. 같은 포지션에 경쟁자가 늘어나 주전자리를 잡기 위해서 캠프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둘은 마치 의기투합이라도 한 듯 쉬는 시간에도 야



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요섭은 타격뿐 아니라 수비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LG 포수 중 방망이 재질은 가장 뛰어나지만, 수비력은 경쟁자들보다 떨어진다. 스위치히터 서동욱은 타격이 문제다. 지난 시즌 타율이 0.216에 머물렀고, 삼진은 78개로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았다. 타격이 살아야만 주전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서동욱은 타격폼 수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지난해 12월 결혼한 새신랑 LG 서동욱과 윤요섭은 휴식시간에도 타격자세를 분석하는 등 시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동욱이 사이판 스프링캠프에서 베이스트링 훈련을 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윤요섭(왼쪽 사진) 오른쪽은 지난해 12월 29일 6세 연하의 오지연 씨와 결혼했다. 사진 제공 | LG트윈스

임시비리 천보성 전 한양대감독에 징역2년

임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천보성(60) 전 한양대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 야구 부장판사)는 1일 고교야구선수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천 전 감독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대학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된 사정,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 전 감독은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양대 야구부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업무를 사실상 전담했다. 그 과정에서 2011년과 2012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달라”는 고교야구 감독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 2명에게서 각각 6000만원과 7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최재국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고품격 패딩바지 70%할인 행사

골프, 낚시, 사이클, 산책, 등 야외활동 완벽커버! 아직 쌀쌀해 움츠려들지 말고 당당히 걸어보자.

납입해 보이는 패턴, 초봄까지 완벽 소화
패딩하면 솔바지 생각이 먼저난다. 몽크로스 패딩바지는 이런 우려를 단번에 해결한다. 우선 납입해 보이도록 스타일리쉬한 패턴을 자랑한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를 연상하면서 따뜻하면서도 유럽풍 스타일에 맞게 기획 설계했다. 두껍지 않으면서도 아간의 칼바람이나 냉기를 막아주고 야외활동시 변함없는 든든한 동반자다.

골프, 낚시, 산책은 기본, 평상복도 완벽커버
2월이면 슬슬 골프가 시작되고 골프들은 기지개를 펴듯 하나둘씩 필드로 직행한다. 하지만 아직 봄은 일러 새벽시간때만 산속은 아직 한기가 온몸의 뼈속을 후린다. 이때 비로스 몽크로스 패딩바지가 위력을 발휘한다. 가만히 앉아 냉기와 싸워야하는 낚시, 쌀쌀해도 변함없이 운동을 즐기는 매니아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패딩바지다.

바이윈과 몽크로스가 함께 론칭한 고품격 패딩 할인행사
시중에서 이런 고품격 유명브랜드 패딩바지는 30~40만원은 지불해야 자기것이 된다.

스위스 브랜드 몽크로스가 이번에 론칭한 패딩바지를 바이윈 클럽 14주년을 맞이해 70% 할인행사를 단행, 고객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행사는 500분 한정 판매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말한다.



사이드 포켓
바지 사이드 부분에 포켓을 적용하여 휴대폰 등 필요한 물건을 보관.



허리밴드
허리 부분을 밴딩 처리해 1~2인치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 보다 편안한 활동성을 보장.

몽크로스 패딩바지 265,000원 → 79,800원



제품신청 바이윈 클럽 1544-0247 / 쇼핑몰 www.buy1club.com